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5호 【루계 제24983호】 주제 104 (2015)년 7월 24일 (금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평성시에 높이 모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뜻깊은 올해를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평성시에 높이 모시였다.

백두산대국의 영상이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천주만대에 길이 전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의 대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 나가는 평안남도인민들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순결무구한 충성의 발현이다.

평성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식이 22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제막식장은 평남땅에 거룩한 령도의 자욱자욱을 새겨가시며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 청년학생들의 다함없는 경로의 정으로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다.

제막식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대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제막식장에 세워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제막식장상공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의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에 높이 받들어모시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들과 《경사용의》, 《일심단결》이라는 글발을 드려온 대형기구들이 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향에는 조선인민군 특근,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공매에위병대가 정렬해있었으며 군인들이 세뿔이 세워져있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최봉해동지, 최태복동지, 박영식동지, 박병기동지, 로두철동지와 김용진 내각부총리, 박태성 평안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강형봉 평안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인민군장병들, 로력혁신자들, 돌격대원들, 도내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제막식에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제막식은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을 당과 국가, 군대, 평안남도의 책임일군들이 하였다.

제막식장이 벗겨지자 온 세상을 밝히는 태양과 같이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이 찬연히 빛을 뿌리었다.

환영곡이 울리고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제막식장을 진감하는 속에 수많은 고무공선들이 날아올라 맑고 푸른 하늘가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체로 된 꽃바구니와 평안남도인민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이어 평안남도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대학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끝없는 경모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발자취가 멀찍이 새겨져있는 평안남도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높이 모신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어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경사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오로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연설자는 일제적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어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혀주시였으며 장대한 두 제국주의를 타도하시고 이 땅위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아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수령의 당과 국가,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우리 조국을 불멸의 일심단결과 무적의 군력을 가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비범한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 숭고한 애국헌신으로 반만년민족사를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통성변명의 시대를 안아오시고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미래를 담보하는 만년로대를 굳건히 마련해주시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적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평안남도에서 거룩한 혁명활동의 자욱을 새겨가시며 도안의 당사업과 경제, 문화사업을 비롯한 전반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해방후 평안남도인민들과 첫 상봉을 하신 그날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수많은 단위를 찾으시면서 도가 사회주의건설에서 앞장서 나가도록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안남도에서

제도 물제도 셋제도 석탄생산이 기본이라고 하시면서 석탄생산을 높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권리해안의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대규모화력발전소와 굴지의 도화학공업기지를 건설하도록 이끌어주시어 나라의 강력한 전력, 석탄, 화학공업기지를 꾸려주시었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 농업협동화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전후에는 목소 조합원이 되시어 당정책판의 앞장에 내세워 주신 평원군 원화리와 열두삼천리벌에 생리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고 도가 강성국가건설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맞게 모든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나가도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거듭 안겨주시었다.

연설자는 오늘 도안의 전반기업이 당의 구상과 의도대로 전개되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혁혁한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 자랑한 현실은 언제나 평안남도가 나아가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세심히 이끌어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걸심이라고 강조하였다.

주체의 태양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에 높이 모시려는 도안의 전체 인민들의 념원은 수령영생위원의 새 령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는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그는 평남땅에 어린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길이 빛내어 갈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간직한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모시기 위한 사업에 순결한 량심과 열정을 다 바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평안남도인민들과 원만군민의 열화같은 흥도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리었다.

그는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생명성으로 품어쥐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팔바탕 정신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절세위인들의 태양의 모습을 영원히 심장깊이 간직하고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답게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며 선군조선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한목숨바쳐 옹위하며 원수님의 령도를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충정다해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 교양, 신념교양, 반체제교양, 도덕교양에 화력을 집중하며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당에서 제시하는 과업들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철저히 집행해나가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석탄과 전력생산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고 주체비료생산에 큰 힘을 넣으며 경제강국건설의 주체적방향을 농업전선에 총력을 집중하여 올해 도안에 나신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절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당의 의도에 맞게 도안의 축산 및 수산기지를 주체 세우고 산림복구전투와 도소제지의 면도를 일일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며 주 요대건설을 제기일내에 훌륭히 완공하여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러며 백두의 빛과 기상으로 폭풍쳐 날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제막식은 《수령님과 장군님을 함께 계시네》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대한 해설을 듣고 수령님들의 동상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이세익의 꼭두각시는 《대화》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요즘 남조선피괴당자들이 대결방진자의 체모에 어울리지 않는 《대화》타령을 늘어놓아 조소를 자아내고있다. 피괴집권자가 《대화》판대극의 주역으로 나서고있다.

얼마전 극악한 제세대에 걸터앉아 《통일준비위원회》의 어중이떠중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란히 박근혜는 그 누구에 대한 《지원》이니, 《공통책임》이니 하면서 우리가 《대화》의 마당에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뻔뻔스러운 말발음을 늘어놓았다.

그보다 앞서 피괴통일부대끼리들은 북남합의의 《존중》과 《전제조건없는 대화》에 대해 주절대면서 대화가 열리면 여러가지 문제를 론의할 수 있다는 말장난을 했다.

피괴배당의 이러한 추태는 우리에게 대화가 열리지 못하는 책임을 취위 북남판계파괴국으로 저들에게로 쏠리는 규언어론을 모면하고 대결정책을 합리화하자는 데 그 유용한 목적이었다. 지어먹은 마음 사를 못 간다고 피괴당국이 그 무슨 《대화와 압박행동》을 운운하며 외세를 야합하여 반공화국도발소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준다.

이것은 간에 따라 날로 확대되며 광범적으로 벌어지는 피괴당국의 반공화국도발소동은 전적으로 미국의 배후조종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 북침전략실행의 돌격대가 되어 반공화국도발과 북침전쟁도발소동에 미칠남없는 피괴들이 그 무슨 《대화》와 《관계개선》을 떠드느니하는 피괴적의 극치이다.

피괴들이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반대해나서는 것은 끝 북남대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북남판계문제는 어디까지나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문제인 것만 반드시 북과 남의 당사자들끼리 주권이 되어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이것을 무시하고 북남판계문제에 외세를 끌어들

며 그에 의존하여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려 한다면 북남판계는 파국을 면할 수 없다.

북과 남은 7.4 공동성명을 통하여 자주의 원칙을 민족문제해결의 근본원칙으로 삼았으며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간다는 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였다.

6.15 공동선언의 실현 강령인 10.4 선언은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제1차로 하고 그에 기초하여 북남판계와 평화번영을 이룩할 때 대한 가장 올바른 길을 밝히었다.

남조선당국이 민족자주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것을 북남판계문제해결의 초석으로 삼았다면 북과 남 사이에 제기되는 많은 파해들이 이미 해결되었을 것이며 조선반도의 공화국 평화를 실현하는데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피괴당국은 도대체 누구와 손을 잡고 누구를 반대해나섰는가?

남조선피괴들은 북과 남이 합의한 자주의 원칙을 유린하고 대화와 협력의 문을 막아버린 장본인이다.

피괴들이 존중하는 것은 북남합의가 아니라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민족공조가 아니라 북남대결을 노린 외세의 공조이다.

미국은 저들의 지배야망과 침략자리의 이익을 위한 대조선적대정책과 통일을 운운하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역사는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가로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미국의 회색을 날같이 고발하고 있다.

이 6.15 공동선언이 채택된 후 북남사에 대한 대화와 협력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나날 민족의 달아오른 통일열기를 못마땅히 여기면서 온갖 간섭과 제약을 일삼던 미국의 반통일적정체는 여지없이 드러났다.

지금 북남판계와 파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남조선피괴들이 북남합의의 정신을 깨버리고 통일의 방해군, 민족의 원수와 공묘결탁하여 동족을 해치는 길로 나아가고있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민족끼리기념에 기초하여 북남판계에서 대전환, 대전혁을 가져오기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꼭두각신 대화의 기회도 그 누구에 대한 《봉곡》 나발로 도전해나선 미국의 오바마당에게 적극 추종하며 《제세통일》당상을 이루아보려고 미처 날린 피괴배당의 위해를 밟아냈다.

반공화국압살에 환장한 미국당국의 온갖 야악에 매달리며 그의 더러운 야합이 노릇이나 극성스럽게 하고있는 피괴적 배당이 그 무슨 《대화》니, 《합의》니 하고 입을 늘려대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망언이다.

자주성을 잃으면 머저리가 되고 외세를 갈취하면 노예가 된다. 남조선집권세력의 원시시대행위와 동족대결책동이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자기의 특특한 정치철학이나 독자적인 주견도 없는 남조선피괴들은 외세의 잔취에 따라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한갖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 피괴들이 들고나온 《대화와 압박행동전략》이라는 것도 미국의 오바마행정부가 다른 나라에 대한 간섭과 위협공작을 위해 들고나온 대화와 제세의 《두길전략》을 그대로 흉내낸 것이다.

최근 미국의 고위정책들과 군부호전방들이 남조선에 변질나게 드러내면서 반공화국제제와 정치군사적압박강화 등과 관련한 강요를 펴고 퍼들었다.

미국의 강요에 따라 피괴들은 여론을 더날 민족의 달아오른 통일열기를 못

세계전쟁사의 기적을 창조하신 절세의 위인 남조선 각계가 칭송

탁월한 사상과 지략, 뛰어난 명군술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남조선 각계층은 오늘날 뜨겁게 전해가고있다.

전쟁사연구회의 한 회원은 세계 어느 전쟁사에도 미국이 북을 반대하여 감행한 전쟁처럼 그렇게 다국적무력이 동원된 바 없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대전에서 패전의 고배를 마시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밝혔다.

한 군사전문가는 전쟁의 승패는 전쟁사연구회 군사전략부의 분석이 아니라 전쟁에 참가하는 군민의 정치사상적 준비상태, 특히는 지력을 결하고 군민을 평화하는 명수의 지도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수원의 한 지식인은 통로들에게 지난 6.25전쟁때 최선장비로 무장한 제국주의 반란세력인 조선반도에서 물러들 때 누가 겁히 이들을 붙잡아 두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김일성동지의 영도령을 받은 이북군민은 그 무력을 타승했다고 격정에 넘쳐 말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되새기는 남조선 각계층은 《아무리 역사를 더듬어보아도 주석님처럼 그렇게 불멸한 진술업적을 쌓은 위인과 명장은 알지 못했다.》고 한 전라북도 교수의 최호일교수, 《민족의 자주성을 수호하고 존엄과 영예를 떨쳐주신 주석님은 민족의 영원한 구세주, 절세의 위인이시다.》고 고충찬 대안당 회장이었다.

《지난 6.25전쟁때 미국이 이권을 들켜 뒀던 것은 전적으로 배반한 군사사상과 뛰어난 지략, 무비의 담력과 심연한 전략술을 지니신 김일성주석님의 탁월한 명도로 이끄셨기 때문이다.》고 27년째

러는 패자로 바꾸어 놓으신 김일성주석님의 공적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의 한 주민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김일성주석님의 전술업적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인터넷전문가들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맞서 승리를 이룩하신 김일성주석님의 업적을 만대까지 길이 빛날 것이다.》, 《인류전쟁사의 기적을 창조하신 김일성주석의 전설적 무공은 대를 이어 길이 전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쟁사 연구원은 김일성주석께서 이룩하신 승전의 역사는 21세기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7.27은 민족사에 당당히 기록되고 영원히 경승되어야 한다고 격조선을 밝혔다.

한 청년학생단체는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이제 어떤 침략세력이든 제2의 6.25를 도발한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제2의 7.27이 따르게 될 것이다.

위대한 명장께서 계시고 무적 필승의 최후방벽이 굳건히 서 있는 한 우리 겨레는 언제나 승리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파쇼폭압통제로 얻을것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과 비참한 파멸밖에 없다

남조선인권대책협회 대변인담화

지난 6월 박근혜가 국무보수 분자이며 악질검사이신 황교안을 피괴국무총리직에 들어 앉힌 후 피괴배당의 진보민주통일세력에 대한 파쇼적탄압이 더욱 강화되고있다.

황교안이 피괴국무총리로 임명되자마자 당국의 로동악정을 반대하고 초보적인 생존권보장을 요구해나선 민주노동 위원장에 대한 체포령장이 발부되고 《세월》 조합사실규명투쟁의 양상에 있던 시민단체인 4.16 연대를 압수수색하는 폭거가 감행되면서 이북 반공농성인들을 지지하면서 통일교육에 나선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 3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되는 등 파쇼폭압이 벌어지고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5일부터 3일간에 걸쳐 통일전보당 핵심관계자들의 살상집회에 대한 강제수색을 벌이고 개인사유들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으며 《세월》 초추모집회를 《불법》으로 몰아대면서 《세월》 조합사실규명단체의 공동의견장을 철상 등으로 끌어가는 파쇼적탄압소동이 공방연일 벌어졌다.

특히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가 《북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고 결고들면서 《러적대적》로 몰아 판계자들에게 대한 폭로무도한 체포와 수배소동을 벌이고 《탈북자》 수배소동을 반공화국배탈살포당으로 내내추기하여 피괴정보호연을 바꾸어 반공화국위하여 본 조직활동을 벌이는 등 매일 같이 대결소동에 팔방이동중이다.

이로써 지금은 남조선판에 신공안파쇼폭압이 벌어지고있다.

지금 남조선연로들과 정보세력들이 《황교안의 첫 작품은 4.16 압수수색》, 《박근혜 《경연》이 본색을 드러내며 공안통치를 하고있다.》, 《공안통치가 독성을 부릴수록 박근혜 《경연》의 붕괴는 더욱 빨라질것》 등으로 규탄대파하면서 강력히 항거해나서고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최근 박근혜가 사회 각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쇼교형적인 황교안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파쇼공안통치의 도수를 더욱 높여 제2의 《유신》 독재체제를 유지하며 반공화국독재모략책동을 로물화하기 위한 전도수였다가 것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황교안으로 말하면 지난 30년간 검사질을 하면서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과 진보적당

반공화국모략과 인권침해를 본거지인 피뢰정보원은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비호두둔하고있다.

피뢰정보원과의 이러한 추태는 우리에게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도발이며 사태의 초점을 면도로 돌려 궁지에 몰아넣어 주는 단발마적방략이다.

지난 시기 피뢰배당은 남조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폐지에 대한 디도스공작사건, 농협은행전신망미사건, 3.20 해군공작사건 등 수많은 해킹사건을 일으켰을 때마다 《북의 소행》으로 여론을 배도하면서 반공화국도발과 대결소동에 팔방이동중이다.

이번 사건으로 그 진범은 다름아닌 피뢰정보원이 우리 인터넷통제체제에 대한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해킹공격, 사이버테러의 주범도 피뢰정보원이라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피뢰정보원이 이번 해킹프로그램을 《대북사이버테러》를 위해 구입하여 지금까지 87개의 해외컴퓨터와 순전자기에 사용하였으므로 그 대다수가 우리와 연계된 IP주소라는 것을 실로 한탄을 피뢰배당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해킹책동에 얼마나 피눈이 되어 날리고있는가 하는 것을 통통히 보여주었다.

피뢰정보원은 반공화국도발과 음모의 소굴인 동시에 피뢰독재정권유지를 위해 반민적 정보사찰과 위태로운 본업으로 하는 민주교살, 인권유린의 본거지이다.

피뢰정보원이 해킹프로그램으로 민간인사찰을 한적이 없다

와대의 안방주인이다.

가만히 10년전 야당대표로 있을 때 짜 《경연》의 《국정원도청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이니, 《자유, 민주를 짓밟은것》이니, 《세력스럽고 수직스럽다.》느니 하며 괴담을 돌리던 박근혜가 지금은 시치미 떼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수하들들을 내세워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해버리고 후안무치하게 날리고있는 것이다.

법적자들이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박근혜가 직접 팔방하는 피뢰정보원의 모략책동과 흉악한 진상은 결코 가리울수도 숨길수도 없다.

통족대결을 위해서라면 온갖 비열한짓도 서슴지 않는 대결파들이 《대화》와 《관계개선》을 운운하고 극악한 비인간적인 황초들이 그 누구의 《인권》을 떠들썩하게 짓기아말로 첩보원의 극치이며 거짓과 여론에 대한 기만이고 모독이다.

파쇼독재의 도구이며 동족대결과 테러, 음모의 소굴인 피뢰정보원은 즉각 해체되어야 하며 수감되는 법의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은 받아야 한다.

피뢰정보원과 같은 악의 본거지들 그대로 두는 것은 남조선인들의 자주와 민주에 대한 꿈과 통일열망이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다.

남조선 각계층은 박근혜당의 《유신》 독재부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21일 남조선의 《한국일보》에 의하면 피뢰배당이 이번주 대대적진격인 조선시대의 설 등에서 대규모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조선전쟁은 그 누구의 《대남 침투》를 떠들썩한 활극무기들을 모두 여기에 투입하여 붙장

경에 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사상업권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당의 목소리와 우렁찬 혁명가요가 울리고 로동당반세출, 사회주의판세출기가 울려퍼지니 그것은 당에 큰 힘으로 됩니다.》

우리 당사상선전의 전초병이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강연강사들

이와 함께 젊은 말들을 비롯하여 위대한 선군시대의 선군시대로 되고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채인철

선군공업대학 교원 김창식동무

용하는 능력과 풍부한 기술기량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통통히 느끼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강연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목표를 스스로 세우고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젊은 말들을 비롯하여 위대한 선군시대의 선군시대로 되고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채인철

선군공업대학 교원 김창식동무

용하는 능력과 풍부한 기술기량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통통히 느끼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강연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목표를 스스로 세우고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제하고 구현하는 것을 체질화한 박해동무에게 그가 진행하는 강연은 언제나 사람들의

선군공업대학 교원 김창식동무

강연의 실패는 강사의 강연실력이 결정한다.

이것은 선군공업대학 교원이든 선군시당원회 최의강연강사인 김창식동무가 체험속에서 찾게 된 주장이다.

라고는 실력기만 없다. 김창식동무 역시 강연강사의 사업을 시작한 첫 시기에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애를 먹었다고 한다. 그는 20년전 시급기관 일꾼들 앞에서 첫 강연을 진행한 그날의 그 괴로움을 지금도 잊지 않고있다. 청강자들의 눈빛에서 자기의 강연에 대한 평가점수를 읽었기 때문이다. 그날 그는 강연의 실패를 높이지 못한 문제를 놓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강연대강은 그대로 위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그들의 심정을 격동시키는 유능한 정치활동가가 되자면 다방면적인 지식과 함께 대상의 특성에 맞게 강연수법을 능동적으로 활용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전적로작과 당동원들, 당정책을 깊이있게 학습하였으며 교육수업을 하는 바쁜 속에서도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여러분야의 지식을 쌓기 위해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탁월한 전법으로 승리만을 안아오신 군사인의 영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이 이란 핵협상타결을 우리와 연결시키고있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가 제기한 질문문에 대한 대답을 21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타스통신은 조선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의 핵억제력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대변인은 최근 이란핵문제와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기화로 미국이 조선의 핵문제에 대해 여러차례 위협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조선은 명실공히 핵보유국이며 핵보유국에는 핵보유국으로서의 리해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조선은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본하는 대화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조선의 핵억제력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있는 미국의 핵위협과 적대시정책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합당하고 옳바름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일트의 웹사이트 '아로트 온라인'은 조선이 이

침략과 전쟁을 일삼으면서 언제 한번 제국을 물었다고 하면 미제를 통해 경제개발이라고 조선의 빛나는 승리를 아로새긴 승리의 그날로부터 62년이 되어오고있다.

평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은 우리 나라가 1950년에 조국해방전쟁에서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와 싸워 승리한 이룩한 것은 역사의 기적이요, 그 기적을 안아오신분은 바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평양인인 위대한 김일성동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일성동지는 총대로 우리 혁명을 개척하고 승리로 이끌어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평양인이며 군사인의 영재이다.》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전쟁을 도발하면서 3월말에 우리 공화국을 점령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하지만 우리 인민군대의 즉시적이며 결정적인 반공격에 의해 미제는 전쟁개시 3일만에 오히려 반공의 이정인 서울에서 쫓겨나고 보름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는 멀리 금강이남으로 패주하게 되었다.

미제는 군사적우승진 대전을 《원시수도》로 정하고 금강과 소백산맥의 자연지리적조건을 이용하여 인민군연합부대의 반공격을 최후적으로 저지시키려고 발악하였다. 적들은 우리 인민군대가 도라할수 있는 유리한 지점마다 근대 전투력이 강한 부대와 하는 악연은 미24사 19연대와 34연대 등 방대한 전력에 사단모병의 주력까지 배치하였다. 뿐만아니라 금강방어를 위해 진공한 진지를 구축하고 공주의 금강다리와 신천의 철다리들을 폭파하였으나 도어 리용될수 있다고 생

각되지는 모조리 불태워버리었다. 그리고는 금강계곡이 《불의의 선》, 《최종방어선》이라고 떠벌이면서 이베리카화중국이 생긴이때 9 000부가 가까이 진행된 전투경험을 보아 이만하면 그 어떤 강력과 맞타든다 해도 《3년간은 문제없이 지명할수 있다.》고 나발을 불어댔다.

미제의 어용출판물들도 이제 조선에서 《...가장 영웅적이며 걸출한 진지화 및 방어전투가 벌어졌기》라고 요란하게 선전하였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금강전투에서 완전히 패하였다. 그들이 그토록 호언장담하던 《불의의 선》, 《최종방어선》은 3년이 아니라 이틀만에 어지럽혀져버리고말았다.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지략이 안아오신 빛나는 결실이었다.

적들의 무력증상으로 하여 변화된 당시의 군사정치적세와 전진정황을 예리하게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이 금강계곡에 최후를 다하여 방어전투를 치기는 했으나 거기에 한 번도 사익이 없었다고, 전방이후간에 방어전투를 치지 못하고 도하여 유리한 지점의 지점에만 병력을 집중시키니 방어에 공간들이 있다는데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었다. 그리시면서 적의 이러한 약점을 리용하여 강행도할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명철하고 심오한 진술에 따라 우리 인민군연합부대는 기세충천하여 금강도하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미제침략자들에서 결정적타격을 안겼다. 이 전투는 영웅적인민군대는 하루동안에 수많은 적들을 살상하고 각종 포,

자동차를 비롯한 많은 무기과 전투기술기계를 로획하였다.

일본의 전쟁사전문가들은 조선인민군의 금강도하전투에 대하여 《북조선의 제3, 제4사단은 우리 주역으로서 미24사를 급속히 추격하고있었는데 미군인 기도를 포착하고 이틀남인 7월 14일 금강을 기습도하여 우선 공주방면의 미34연대를 격파하였으며 이어 ...대령정령의 미19연대를 괴멸시켰다. 이러한 전투에서 북조선군은 언제나 미군방어전지의 찻새로 침투하여 그 후방을 습격하였고 이북을 그 회로로 차단하였다. 북조선군은 미군이 밀쳐야 할때는 본진이 없는 정면공격과 기습전 등 두가지 전법을 구사하는 맞서기 힘든 상대였다.》라고 진술했다.

후날 우리 인민군연합부대의 승리적인 금강도하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짜주신 작전의 하나였다는 것을 인정할수 있다. 우두머리들은 그이께서 세우신 작전들은 하나같이 세계전쟁사에도, 어느 나라의 병사에도 없는 것이었다. 간혹 그 어떤 전술적조치를 취하였다 해도 이미 때를 놓친 것이었다고 비평을 질렀다고 한다.

조선해방전쟁 제2계단의 첫 작전인 인천-서울지구 및 랑동강계곡의 방어에 관한 작전에서 우리 인민군연합부대가 거둔 빛나는 승리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지략과 병술이 안아오신 빛나는 결실이었다.

영웅적인민군연합부대의 반공격에 의하여 전선에서 거두되는 패배를 당한 미제는 그 그 만회하고 전진술을 강행하려는 침략적목적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는 야망에 태평양방면에 있던 특대공군의 총병력, 지중해함대의 일부, 미국본토의 지상군과 영공, 프랑

스, 오스트리아 등 중공국가군대들을 포함한 수십만의 대병력을 조선전선에 끌어들이었다.

후에 알려진데 의하면 미제가 전쟁을 도발한 그해 8월 23일 일본 도쿄에 있는 미국중공군사령부의 알려지지 않은 한 비밀지하실에서 미군부우두머리들의 작전회의가 진행되었다. 이 작전회의에서 대병력을 인선에 상륙시켜 랑동강계곡선과 후방을 연결하는 기본종로인 서울지역을 순식간에 차단함으로써 인천공대의 기본전략을 《포위수렴》할수 있는 작전계획이 세워졌던 것이다.

미제는 이 작전을 제5차 유엔총회전에 계속하려고 하였다. 유엔총회회담에서 저들의 《강대성》을 시위하여 세계적 폐야망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9월 13일에 인천상륙작전을 개시하였다. 당시 유엔총회는 9월 19일에 개막하게 되었다.

미제는 《크로마이트 100-4계획》이라는 암호로 불려온 인천상륙작전을 벌이면서 제2차 세계대전기간인 1944년 6월초-7월 하순 프랑스의 서북부에서 미영연합군이 진행한 노르망디상륙작전과 같은 《성파》를 거두기를 망상하였다.

3-5일만에 서울을 점령하려던 미제의 현란한 꿈, 제5차 유엔총회전까지 인민군대의 주력부대로 《포위수렴》하러던 망상은 그야말로 개꿈이 되고말았다.

당시 비상한 통찰력과 선견지명으로 우리 인민군대는 《포위수렴》하려는 미제의 기도를 깨물어 버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적들의 진공속도를 최대한으로 지연시키면서 시간을 쟁취하여

인민군주력부대들을 구출하고 새로운 예비부대들을 편성하여 강력한 반공격집단을 형성하며 계획적인 후퇴를 조직할데 대한 전략적방향을 제시하시었다. 그리고는 인천-서울방어전을 완강히 벌이고 랑동강계곡선에서 방어전을 강화하여 적의 공격속도를 최대한 지연시킬수 있는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방향과 방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군대는 9월 28일까지 서울을 건지하면서 미제에게 결정적타격을 안겼다. 인천-서울방어작전의 빛나는 승리는 그후 우리 인민군대의 재진격을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었다.

인천-서울방어작전지 월미도용사들이 세운 영웅적위훈은 오늘날 길이 빛나고있다.

세계전쟁사에도 4문의 포를 가진 1개 해안포대와 보병 1개 중대의 역량이 약 1 000대의 비행기와 수백척의 함선, 5만여명의 대병력과 싸워 큰 타격을 주고 O.66km에 이르는 섬을 3일간이나 고수한 영웅적사실은 기록되어있지 않다.

상에서 제일 강하다는 미제를 대항하고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사의 갈피마다에는 진실적용사들이 백전백승의 강철의 평양인인 김일성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천리해안의 통찰에 대한 이야기갈들이 수없이 기록되어있고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위업을 그대로 계승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어 자랑찬 전승의 역사를 대를 이어 빛내어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철룡

민식 핵협상타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 자국의 명실공히 핵보유국으로 실정 이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이란핵협상을 끊임없는 대 규모 합동군사 압박적인 군사적대행위, 최대의 핵위협이 항시적으로 개시되고있는 조선의 실정과 비교하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리아 노보스피통신, 인페르소스통신, 신문 《로스카가야 가세파》와 《모스콥스키 푸소몰레트》, 스푸트니크 방송, 인터네트통신, 로스발트포를 비롯한 로씨야의 출판물이며 핵보유국에는 핵보유국으로서의 리해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조선은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본하는 대화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조선의 핵억제력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있는 미국의 핵위협과 적대시정책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합당하고 옳바름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일트의 웹사이트 '아로트 온라인'은 조선이 이

로씨야대통령 고도기술을 발전시킬것을 호소

로씨야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최근 담화에서 고도기술을 발전시킬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지금 로씨야의 경쟁자들과 반대파들이 정치목적을 위해 온갖 계제방법을 다 적용하고있다고 하면서 현대적인 나라를 건설하려면 자체의 고도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안전을 수호할 강경립장

조선에 대한 위협과 높은 투명성을 지닌 수리라인민은 테로분자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한편 수리라인민은 테로분자들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있다.

18일 이 나라 군대는 자바다 너시에서 테로분자들을 벌려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영화 감상회 진행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인디아 델리주 제사상연구회, 알제리군로자총동맹, 앙골라 영보에총회사, 나이지리아 아부자 인텔리가 공구장에서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가 6월 29일과 7월 16일 각 2회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결실단결로 승리멸쳐는 내 조국》, 《조선전쟁의 도발자》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인디아 델리주제사상연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미국은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목적에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

미국은 이 전쟁에 자기 나라의 특대공군과 15개 추종국가군대를, 남조선군과 구일본군단장까지 포함한 200여명의 대병력과 방대한 군수물자를 투입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군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미국은 우리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6.27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리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한 위대한 승리의 날로 기록되게 되었다.

앙골라 영보에총회사 총사국제가 나, 나이지리아 단결로 승리멸쳐는 내 조국, 《조선전쟁의 도발자》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미국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미국이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입은 손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전쟁 4년동안에 입은 손실의 거의 2,3배에 달하였다.

조선전쟁은 전국유수 110여차례의 침략전쟁에서 단 한번의 패전도 없었다. 미국이 처음으로 패배한 전쟁으로 되었다.

동방의 크지 않은 나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국을 대항하여 승리한 역사를 창조하였다.

7.27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리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한 위대한 승리의 날로 기록되게 되었다.

앙골라 영보에총회사 총사국제가 나, 나이지리아 단결로 승리멸쳐는 내 조국, 《조선전쟁의 도발자》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미국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미국이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입은 손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전쟁 4년동안에 입은 손실의 거의 2,3배에 달하였다.

조선전쟁은 전국유수 110여차례의 침략전쟁에서 단 한번의 패전도 없었다. 미국이 처음으로 패배한 전쟁으로 되었다.

동방의 크지 않은 나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국을 대항하여 승리한 역사를 창조하였다.

장은 영화를 통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시는 김정일동지께서 국방력강화에 얼마나 큰 관심을 돌리게시하는가를 잘 알기 되었다고 하면서 선군정치에 대한 연구보급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국제가 나, 나이지리아 단결로 승리멸쳐는 내 조국, 《조선전쟁의 도발자》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미국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미국이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입은 손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전쟁 4년동안에 입은 손실의 거의 2,3배에 달하였다.

조선전쟁은 전국유수 110여차례의 침략전쟁에서 단 한번의 패전도 없었다. 미국이 처음으로 패배한 전쟁으로 되었다.

동방의 크지 않은 나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국을 대항하여 승리한 역사를 창조하였다.

수 없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된지 2년도 안되었다. 그러나 그처럼 강대하던 미국의 군사기술적우세도 자기 위원의 정당을 지각하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힘을 당해낼수 없었다.

미국이 조선전쟁에 특공의 3분의 1,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 그리고 15개 추종국가군대를, 남조선군과 구일본군단장까지 들이밀었지만 얻은 결과는 수척스러운 패배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의 참패에서 교훈을 찾는데서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책동하고있다. 조선은 미국의 무단적인 핵위협에 대처하여 핵억제력을 갖추었으며 자기목적의 글을 편집하였다.

《조선전쟁의 교훈, 미국의 힘은 만능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조선전쟁이 일어날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의 군사기술적력량은 대비조차 할 수 없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된지 2년도 안되었다. 그러나 그처럼 강대하던 미국의 군사기술적우세도 자기 위원의 정당을 지각하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힘을 당해낼수 없었다.

미국이 조선전쟁에 특공의 3분의 1,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 그리고 15개 추종국가군대를, 남조선군과 구일본군단장까지 들이밀었지만 얻은 결과는 수척스러운 패배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의 참패에서 교훈을 찾는데서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책동하고있다. 조선은 미국의 무단적인 핵위협에 대처하여 핵억제력을 갖추었으며 자기목적의 글을 편집하였다.

《조선전쟁의 교훈, 미국의 힘은 만능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조선전쟁이 일어날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의 군사기술적력량은 대비조차 할 수 없었다.

나사의 안전을 수호할 강경립장

조선에 대한 위협과 높은 투명성을 지닌 수리라인민은 테로분자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한편 수리라인민은 테로분자들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있다.

18일 이 나라 군대는 자바다 너시에서 테로분자들을 벌려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영화 감상회 진행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인디아 델리주 제사상연구회, 알제리군로자총동맹, 앙골라 영보에총회사, 나이지리아 아부자 인텔리가 공구장에서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가 6월 29일과 7월 16일 각 2회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결실단결로 승리멸쳐는 내 조국》, 《조선전쟁의 도발자》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인디아 델리주제사상연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미국은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목적에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

미국은 이 전쟁에 자기 나라의 특대공군과 15개 추종국가군대를, 남조선군과 구일본군단장까지 포함한 200여명의 대병력과 방대한 군수물자를 투입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군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집회와 시위, 파업 진행

이러한 시위들이 같은 날 다른 도시들에서도 있었다.

오스트리아의 항공 및 해상운수부문에서 파업이 일어났다. 파업자들은 근로조건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생활형편에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로동조건을 개선하고 임금을 올려줄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시위들이 같은 날 다른 도시들에서도 있었다.

오스트리아의 항공 및 해상운수부문에서 파업이 일어났다. 파업자들은 근로조건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생활형편에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로동조건을 개선하고 임금을 올려줄것을 요구하였다.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인디아 델리주 제사상연구회, 알제리군로자총동맹, 앙골라 영보에총회사, 나이지리아 아부자 인텔리가 공구장에서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가 6월 29일과 7월 16일 각 2회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결실단결로 승리멸쳐는 내 조국》, 《조선전쟁의 도발자》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인디아 델리주제사상연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미국은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목적에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

미국은 이 전쟁에 자기 나라의 특대공군과 15개 추종국가군대를, 남조선군과 구일본군단장까지 포함한 200여명의 대병력과 방대한 군수물자를 투입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군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인디아 델리주 제사상연구회, 알제리군로자총동맹, 앙골라 영보에총회사, 나이지리아 아부자 인텔리가 공구장에서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가 6월 29일과 7월 16일 각 2회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결실단결로 승리멸쳐는 내 조국》, 《조선전쟁의 도발자》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인디아 델리주제사상연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미국은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목적에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

미국은 이 전쟁에 자기 나라의 특대공군과 15개 추종국가군대를, 남조선군과 구일본군단장까지 포함한 200여명의 대병력과 방대한 군수물자를 투입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군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인디아 델리주 제사상연구회, 알제리군로자총동맹, 앙골라 영보에총회사, 나이지리아 아부자 인텔리가 공구장에서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가 6월 29일과 7월 16일 각 2회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결실단결로 승리멸쳐는 내 조국》, 《조선전쟁의 도발자》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인디아 델리주제사상연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미국은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목적에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

미국은 이 전쟁에 자기 나라의 특대공군과 15개 추종국가군대를, 남조선군과 구일본군단장까지 포함한 200여명의 대병력과 방대한 군수물자를 투입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군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군사훈련

로씨야의 동부군관구에서 최근 반항공부대의 군사훈련이 시작되었다.

군관구의 18개 사역장에서 1개월동안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2 000명 이상의 군인들과 약 500대의 전투기술기재들이 동원되었다.

훈련에서 군인들은 《이클라》와 《베르바》를 비롯한 이종식대공미사일총합체들로 여러가지 공중목표에 대한 사격훈련을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

17일 동부군관구 공보부가 밝혔다.

안전을 수호할 강경립장

조선에 대한 위협과 높은 투명성을 지닌 수리라인민은 테로분자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한편 수리라인민은 테로분자들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있다.

18일 이 나라 군대는 자바다 너시에서 테로분자들을 벌려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영화 감상회 진행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인디아 델리주 제사상연구회, 알제리군로자총동맹, 앙골라 영보에총회사, 나이지리아 아부자 인텔리가 공구장에서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가 6월 29일과 7월 16일 각 2회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결실단결로 승리멸쳐는 내 조국》, 《조선전쟁의 도발자》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인디아 델리주제사상연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미국은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목적에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

미국은 이 전쟁에 자기 나라의 특대공군과 15개 추종국가군대를, 남조선군과 구일본군단장까지 포함한 200여명의 대병력과 방대한 군수물자를 투입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군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집회와 시위, 파업 진행

이러한 시위들이 같은 날 다른 도시들에서도 있었다.

오스트리아의 항공 및 해상운수부문에서 파업이 일어났다. 파업자들은 근로조건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생활형편에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로동조건을 개선하고 임금을 올려줄것을 요구하였다.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인디아 델리주 제사상연구회, 알제리군로자총동맹, 앙골라 영보에총회사, 나이지리아 아부자 인텔리가 공구장에서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가 6월 29일과 7월 16일 각 2회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결실단결로 승리멸쳐는 내 조국》, 《조선전쟁의 도발자》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인디아 델리주제사상연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미국은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목적에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

미국은 이 전쟁에 자기 나라의 특대공군과 15개 추종국가군대를, 남조선군과 구일본군단장까지 포함한 200여명의 대병력과 방대한 군수물자를 투입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군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인디아 델리주 제사상연구회, 알제리군로자총동맹, 앙골라 영보에총회사, 나이지리아 아부자 인텔리가 공구장에서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가 6월 29일과 7월 16일 각 2회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결실단결로 승리멸쳐는 내 조국》, 《조선전쟁의 도발자》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인디아 델리주제사상연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미국은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목적에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

미국은 이 전쟁에 자기 나라의 특대공군과 15개 추종국가군대를, 남조선군과 구일본군단장까지 포함한 200여명의 대병력과 방대한 군수물자를 투입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군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군사훈련

로씨야의 동부군관구에서 최근 반항공부대의 군사훈련이 시작되었다.

군관구의 18개 사역장에서 1개월동안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2 000명 이상의 군인들과 약 500대의 전투기술기재들이 동원되었다.

훈련에서 군인들은 《이클라》와 《베르바》를 비롯한 이종식대공미사일총합체들로 여러가지 공중목표에 대한 사격훈련을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

17일 동부군관구 공보부가 밝혔다.

안전을 수호할 강경립장

조선에 대한 위협과 높은 투명성을 지닌 수리라인민은 테로분자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한편 수리라인민은 테로분자들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있다.

18일 이 나라 군대는 자바다 너시에서 테로분자들을 벌려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영화 감상회 진행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인디아 델리주 제사상연구회, 알제리군로자총동맹, 앙골라 영보에총회사, 나이지리아 아부자 인텔리가 공구장에서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가 6월 29일과 7월 16일 각 2회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결실단결로 승리멸쳐는 내 조국》, 《조선전쟁의 도발자》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인디아 델리주제사상연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미국은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목적에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

미국은 이 전쟁에 자기 나라의 특대공군과 15개 추종국가군대를, 남조선군과 구일본군단장까지 포함한 200여명의 대병력과 방대한 군수물자를 투입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군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집회와 시위, 파업 진행

이러한 시위들이 같은 날 다른 도시들에서도 있었다.

오스트리아의 항공 및 해상운수부문에서 파업이 일어났다. 파업자들은 근로조건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생활형편에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로동조건을 개선하고 임금을 올려줄것을 요구하였다.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인디아 델리주 제사상연구회, 알제리군로자총동맹, 앙골라 영보에총회사, 나이지리아 아부자 인텔리가 공구장에서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가 6월 29일과 7월 16일 각 2회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결실단결로 승리멸쳐는 내 조국》, 《조선전쟁의 도발자》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인디아 델리주제사상연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미국은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목적에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

미국은 이 전쟁에 자기 나라의 특대공군과 15개 추종국가군대를, 남조선군과 구일본군단장까지 포함한 200여명의 대병력과 방대한 군수물자를 투입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군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인디아 델리주 제사상연구회, 알제리군로자총동맹, 앙골라 영보에총회사, 나이지리아 아부자 인텔리가 공구장에서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가 6월 29일과 7월 16일 각 2회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결실단결로 승리멸쳐는 내 조국》, 《조선전쟁의 도발자》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인디아 델리주제사상연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미국은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목적에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

미국은 이 전쟁에 자기 나라의 특대공군과 15개 추종국가군대를, 남조선군과 구일본군단장까지 포함한 200여명의 대병력과 방대한 군수물자를 투입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군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군사훈련

로씨야의 동부군관구에서 최근 반항공부대의 군사훈련이 시작되었다.

군관구의 18개 사역장에서 1개월동안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2 000명 이상의 군인들과 약 500대의 전투기술기재들이 동원되었다.

훈련에서 군인들은 《이클라》와 《베르바》를 비롯한 이종식대공미사일총합체들로 여러가지 공중목표에 대한 사격훈련을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

17일 동부군관구 공보부가 밝혔다.

안전을 수호할 강경립장

조선에 대한 위협과 높은 투명성을 지닌 수리라인민은 테로분자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한편 수리라인민은 테로분자들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있다.

18일 이 나라 군대는 자바다 너시에서 테로분자들을 벌려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영화 감상회 진행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인디아 델리주 제사상연구회, 알제리군로자총동맹, 앙골라 영보에총회사, 나이지리아 아부자 인텔리가 공구장에서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가 6월 29일과 7월 16일 각 2회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결실단결로 승리멸쳐는 내 조국》, 《조선전쟁의 도발자》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인디아 델리주제사상연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미국은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목적에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

미국은 이 전쟁에 자기 나라의 특대공군과 15개 추종국가군대를, 남조선군과 구일본군단장까지 포함한 200여명의 대병력과 방대한 군수물자를 투입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군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집회와 시위, 파업 진행

이러한 시위들이 같은 날 다른 도시들에서도 있었다.

오스트리아의 항공 및 해상운수부문에서 파업이 일어났다. 파업자들은 근로조건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생활형편에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로동조건을 개선하고 임금을 올려줄것을 요구하였다.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인디아 델리주 제사상연구회, 알제리군로자총동맹, 앙골라 영보에총회사, 나이지리아 아부자 인텔리가 공구장에서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가 6월 29일과 7월 16일 각 2회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결실단결로 승리멸쳐는 내 조국》, 《조선전쟁의 도발자》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인디아 델리주제사상연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미국은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목적에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

미국은 이 전쟁에 자기 나라의 특대공군과 15개 추종국가군대를, 남조선군과 구일본군단장까지 포함한 200여명의 대병력과 방대한 군수물자를 투입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군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인디아 델리주 제사상연구회, 알제리군로자총동맹, 앙골라 영보에총회사, 나이지리아 아부자 인텔리가 공구장에서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가 6월 29일과 7월 16일 각 2회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결실단결로 승리멸쳐는 내 조국》, 《조선전쟁의 도발자》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인디아 델리주제사상연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미국은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목적에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

미국은 이 전쟁에 자기 나라의 특대공군과 15개 추종국가군대를, 남조선군과 구일본군단장까지 포함한 200여명의 대병력과 방대한 군수물자를 투입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군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군사훈련

로씨야의 동부군관구에서 최근 반항공부대의 군사훈련이 시작되었다.

군관구의 18개 사역장에서 1개월동안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2 000명 이상의 군인들과 약 500대의 전투기술기재들이 동원되었다.

훈련에서 군인들은 《이클라》와 《베르바》를 비롯한 이종식대공미사일총합체들로 여러가지 공중목표에 대한 사격훈련을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

17일 동부군관구 공보부가 밝혔다.

안전을 수호할 강경립장

조선에 대한 위협과 높은 투명성을 지닌 수리라인민은 테로분자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한편 수리라인민은 테로분자들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있다.

18일 이 나라 군대는 자바다 너시에서 테로분자들을 벌려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영화 감상회 진행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인디아 델리주 제사상연구회, 알제리군로자총동맹, 앙골라 영보에총회사, 나이지리아 아부자 인텔리가 공구장에서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가 6월 29일과 7월 16일 각 2회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결실단결로 승리멸쳐는 내 조국》, 《조선전쟁의 도발자》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인디아 델리주제사상연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미국은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목적에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

미국은 이 전쟁에 자기 나라의 특대공군과 15개 추종국가군대를, 남조선군과 구일본군단장까지 포함한 200여명의 대병력과 방대한 군수물자를 투입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군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집회와 시위, 파업 진행

이러한 시위들이 같은 날 다른 도시들에서도 있었다.

오스트리아의 항공 및 해상운수부문에서 파업이 일어났다. 파업자들은 근로조건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생활형편에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로동조건을 개선하고 임금을 올려줄것을 요구하였다.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6.25-7.27